

요시다 불 축제와 억새 축제

요시다 불 축제는 기타구치혼구 후지센젠 신사와 스와 신사가 8월 26일과 27일에 공동으로 개최하는 가을 축제입니다. 이 축제는 등산 시즌의 끝을 알리는 ‘야마지마이(폐산)’ 행사로 행해집니다.

첫째 날에는 길이가 3m에 달하는 햅쌀 약 100개가 후지요시다 시내의 변화가에 세워집니다. 밤의 장막이 내려오면 신성한 가구라(신에게 봉납하는 음악과 춤)를 연주함과 동시에 햅쌀에 불이 붙여지고 한 면이 불바다로 변합니다.

후지산 형상의 미코시

불 축제 기간에는 2대의 미코시(신을 태운 가마)가 시내를 순행합니다. 그 중 1대는 목재로 후지산의 형상을 만든 후 옷칠을 하여 윤기나는 붉은 색으로 마감한 특이한 가마로 그 중량은 1톤에 이릅니다. 분화하는 후지산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는 이 미코시는 시내를 순행하는 도중 땅에 3번 세게 부딪치게 됩니다. 이 지역의 다른 몇몇 신사도 특징적인 후지산 모양의 미코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 전통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미코시 안쪽에는 1704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

억새 축제

억새 축제는 미코시가 하룻밤을 보낸 오타비쇼(임시 거처)에서 기타구치혼구 후지센젠 신사로 돌아오는 8월 27일 오후에 개최됩니다. 흰 종이띠로 깨끗이 정리된 억새 잔가지 다발을 든 참배자들은 신사로 돌아오는 미코시의 뒤를 따르며 신사 경내의 다카마노하라(높은 하늘의 평원)라 불리는 구역 주변을 몇 바퀴 돕니다.